

# 김현수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포

### 17경기만에 터뜨려 결승점 강정호·박병호는 무안타

5경기 연속 선발 출장한 김현수(28·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는 선발 출전했지만 나란히 무안타에 그쳤다. 김현수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2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출전해 솔로 홈런 포함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했다. 4-4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7회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1점 홈런을 터뜨렸다. 메이저리그 데뷔 17경기만에 터진 홈런으로 이날 경기의 결승점이 됐다. 최근 5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며 기회를 부여받은 김현수는 필요한 순간 홈런을 터뜨리며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김현수는 시즌 타율 0.388에서 0.383(47타수 18안타)로 소폭 하락했고 1홈런 3타점 6득점을 기록하게 됐다. OPS(출루율+장타율)는 0.974로 끌어 올렸다. 1회초 무사 1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상대 선발 마이크 클레빈저와 승부한 김현수는 2볼 2스트라이크에서 6구째 92마일(약 148km) 직구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팀이 3-0으로 앞선 2회, 2사 1루에서

는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에 성공해 6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다. 김현수는 팀이 4-3으로 추격을 허용한 5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의 바뀐 투수 댄 오데로에게 이날 경기 두 번째 삼진을 당했다. 하지만 김현수는 동점인 7회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세 번째 투수 우완 제프 맨시과의 대결에서 0볼 2스트라이크 때 침착하게 연속 볼 2개를 골라냈다. 이후 5구째 92마일(약 148km) 투심 패스트볼을 힘껏 잡아당겼다. 방망이에 정확하게 걸린 이 타구는 빠르게 오른쪽 담장을 넘어 관중석으로 향했다. 김현수의 홈런으로 볼티모어는 균형을 깨고 5-4로 앞섰다. 7회말 수비에서 조이 리카드로 교체되며 이날 경기를 마쳤다. 볼티모어는 김현수의 결승 홈런에 힘입어 6-4로 승리했다. 강정호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원정 경기에 4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이를 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지명타자로 출전해 시즌 6호 홈런을 터뜨렸던 강정호는 전날 휴식을 취한 뒤 선발로 복귀했지만 이렇다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첫 타석부터 헛스윙 삼진을 당한 강정호는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실책으로 첫 출루에 성공했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 두 타석 모두 3루 땅볼에 그치며 안타를 때려내는데 실패했다.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308에서 0.288(58타수 18안타)로 2할대로 떨어졌다. 박병호는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 6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28)가 30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빅리그 데뷔 17경기 만에 솔로 홈런을 터뜨린 뒤 홈으로 들어와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번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 2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쳤다. 2회초 첫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박병호는 팀이 4-2로 앞선 4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했다. 후안 센테노의 2루타 때 홈을 밟았다. 시즌 11

### 전국생활체육전 전북선수단 좋은 성적 거둬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33개 종목 1,010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여한 전북선수단은 빙상 종목에서 장년·중년·청소년부 등에서 13개의 참가 종목 최다 금메달을 차지해 빙상 종합우승을 거뒀다. 특히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 대학부 경기에서는 전북 클럽팀(감독 육석진)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며 이 밖에도 일반부면 게이트볼, 당구 포켓부면, 인라인 국학기공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전북은 27일 열린 2017 세계태권도대회 마스코트인 '태리'와 '이방'을 앞세우고 조형물을 이용한 발차기를 등 많은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라북도체육회 류창욱 사무처장은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정과 화합의 장을 나누고 우리 전북체육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일 수 있었던 뜻 깊은 대회였다"며 "참가동호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을 통해 전북체육이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 군산시청 조정부 화천평화배 전국대회 종합우승

군산시청 조정부가 '제10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쾌거를 거두며 이 대회 8연패를 달성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군산시청 조정팀은 이선희 선수가 싱글스킬 은메달을 차지했고, 무타페어에서 피선미, 김영래 선수가 금메달을, 4명이 출전하는 쿼터페어에서도 은메달을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정상에 등극했다. 군산시청 조정팀은 동계훈련을 무사히 마친 선수들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현지 적응훈련을 이어가 준비한 노력으로 올 시즌 첫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 전북 근대3종 선수단 전국소년체전 금·은·동 획득

### 개인전 형태극 금메달·단체전 동메달 등 연이어 획득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한 전북 근대3종(회장 김현식) 선수단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많은 메달을 획득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근대3종 선수단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개인전에 출전한 형태극 선수의 금메달을 시작으로 단체전 동메달 릴레이 은메달을 연이어 획득했다. 형태극 선수는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경기도 출신의 김원우 선수를 총점 6점 차이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는 김원우 선수에 비해 기록이 1분가량 뒤져 우승이 힘들어 보였지만 육상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형태극 선수를 중심으로 김원민,

강창훈, 신은석 선수가 함께 참여한 단체전 경기에서도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총점 3,602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노렸지만 서울(총점 3,600점), 경기(총점 3,608)에 미세한 점수차이로 뒤져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펼쳐진 근대3종 릴레이 경기에서는 형태극 김원민, 신은석 선수가 출전해 분부를 펼쳤지만 서울에 아쉽게 총점 7점 차이로 뒤지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회를 진두지휘한 임성택 근대3종 전무이사는 "종합 12위를 목표로 다 같이 노력하는 전북선수단에게 보람이어서 기쁘다"며 "우리 근대3종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고생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한 전북 근대3종 선수단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많은 메달을 획득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 손연재 월드컵대회전 종목 메달 획득

월드컵 대회에서 전 종목 메달을 획득해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전망을 밝힌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만족감을 드러냈다. 손연재는 29일(한국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6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소피아 월드컵 종목별 결선에서 곤봉(18,550점) 1위, 후프(18,650점) 2위, 리본(18,450점) 2위, 볼(18,550점) 3위에 올랐다. 지난 28일 개인종합에서도 3위에 올랐던 손연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모든 종목에서 시상대에 올랐다. 손연재는 30일 소속사를 통해 "월드컵에서 개인종합을 포함해 전종목에서 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인종합에서 손연재는 74,200점을 획득해 자신의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종목별 결선 곤봉을 통해 석 달여 만에 월드컵 금메달을 손에 넣기도 했다. 후프에서는 종목 최고점을 새롭게 썼다. /김민근 기자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